

2018년 제2차 시청자위원회 회의결과

작성일자: 2018.12.26.(수) 심의자료실

□ 개 요

- 일 시 : 2018.12.26.(수) 10:30
- 장 소 : 국악방송 본사 10층 대회의실
- 출석 위원 : 유영대(위원장), 김 휘, 변재수, 김신아, 이정화 등
- 참석 국악방송 임직원
 - 사장, 심의자료실장, 방송제작부장, 문화영상콘텐츠부장, 방송기술부장, 심의자료실 부원 및 인턴 사원 등
- 주요 내용
 - 국악방송 대표 및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인사
 - 2018년 제1차 시청자위원회 후속조치 결과보고
 -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제안 및 영상채널 개국예정에 따른 콘텐츠 제작·수급방안 의견수렴 (시청자위원)

□ 결 과

- 주요 안건 보고
 - 2018년 제1차 시청자위원회 후속조치 결과보고 (방송제작부장)
-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제안 및 영상채널 개국예정에 따른 콘텐츠 제작·수급방안 의견수렴 진행 (시청자위원)
- 국악뮤직비디오<GMV> 제작보고회 및 간담회 참석 (12층 공개홀)

□ 라디오 프로그램 관련 제안 및 영상채널 개국예정에 따른 콘텐츠 제작·수급방안 의견수렴 내용

- 국악인뿐만 아니라 외부의 음악전문가, 마니아가 진행하는 시도도 좋겠음 (유영대 위원장)
- 국악방송 자체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, 프로모션이 TV개국 이전에 준비되어야 함. 대중을 상대로 한 방송 및 대중적인 언어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음 (김신아 위원)
- 트렌드를 반영한, 젊은 층도 많이 들을 수 있는 ‘예술가의 Back Stage’와 같은 프로그램이 강화되면 좋겠음 (이정화 위원)
- 차량에서 듣는 시간대를 공략하여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배치해 보는 것도 의미 있겠음 (유영대 위원장)
- 대응편성은 좋은 전략임. 타 방송사의 국악 편성 시간대를 공략하여 청취자를 국악방송으로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(김휘 위원)
- 국악계의 인력풀(국악인 등)을 잘 활용하여 국악방송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. 국악방송의 모든 면에서 국악적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면 함 (변재수 위원)
- 전통문화예술채널 개국 전 충분한 채널홍보가 되어있어야 함. 국악 및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예를 들어 “아리랑”을 소재로 한 플래시몹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기획해 대대적 홍보를 해볼 것을 제안 (김휘 위원)
- 전문가의 눈높이 보다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고 프로그램 제작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 (김신아 위원)
- 국악을 기초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함. 국악진흥법이 내년쯤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국악진흥법 안에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R&D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TF구성이 필요 (김휘 위원)

- 국악방송은 TV채널 제작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당된 제작예산으로는 공연중계 등 일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메세나를 활용해 기업들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고 퀄리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 함 (송혜진 사장)
- 정부산하 문화예술기관과의 콘텐츠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함 (김신아 위원)
- 서양 클래식 전문채널 ‘클래시카 채널(스팅레이 클래식)’ 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 (유영대 위원장)
- 라디오프로그램을 하이클래스에 초점에 맞춘 매체로 정착시키고, TV매체는 일반 대중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매체로 성장시키는 것도 의미 있는 운영 전략임 (송혜진 사장)
- 요즘 영상 매체를 보면 예능이 대세. 기존 타 매체 인기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악 콘텐츠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
- ‘알쓸신잡’ 과 같이 국악 및 전통문화예술 전문가, 또는 유명 연예인이 진행하는 지식적 탐방프로그램 개발도 필요 (이정화 위원)
- 역량 있는 예능피디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. 전통관련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의 보유리스트를 체크한 후 협상을 통해 저렴하게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안 필요. 이는 개국 전 진행 되어야 함
- 전통문화예술채널 개국 전 10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파악해 볼 필요 있음 (김신아 위원)
- 외국인으로 구성된 팬클럽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
- 영상콘텐츠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. 특히 완창판소리의 경우 자막과 해설 등을 통하여 시청자가 설명과 함께 이해하며 감상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족함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함 (이정화 위원)

- 완창판소리 브랜드화 필요 (김휘 위원)
- 제작비 절감을 위해 라디오 융합형 프로그램도 일부 개발되어야 함 (송혜진 사장)
- 영상콘텐츠의 온전한 활용을 위해 저작권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야 함 (김신아 위원)
- 전통문화예술채널에서 제작될 영상콘텐츠의 해외보급을 위해서라도 영어자막 작업도 진행할 필요 있음 (김신아 위원)

□ 시청자위원회 사진자료

